

워크샵

'철거 폭력, 그리고 적준.
이대로는 안된다!'

일시 : 1998년 5월 22일(금) 오후 2시 - 4시

장소 : 명동성당 내 교육관 205호

주최 :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회 : 천주교 인권위원회 오창익 사무국장

- 순 서 -

1. 여는 말씀
 - 이기우 신부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2. 발제 1 :
 - 도시재개발 역사와 철거 용역에 대한 분석
 - 신동우 국장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연합 조직국장)

3. 발제 2 :
 - 철거 감시 활동을 통해 본 철거민의 현실
 - 박문수 신부 (서강대 교수, 아시아 철거감시단 단장)

4. 발제 3 :
 - 철거 과정에서 빚어지는 폭력은 정당한가?
 - 이덕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5. 발제 4 :
 - 철거 폭력의 대명사 적준(現 다원건설)과 우리의 대응
 - 고상만 간사 (천주교 인권위원회)

6. 종합 토론

개발지역내의 폭력문제

신동우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연합 조직국장)

1. 개발지역내 강제철거와 폭력사태

1) 오류 1지구 폭력 철거

▶ 93년 9월 14일 08:00 구로구 오류1동 (주)적준 용역 폭력배 100여명 강제철거시도 주민 10여명 부상

2) 칼산 5지구

▶ 94년 1월 12일 신정동 칼산 5재개발 지구에 (주)적준용역 소속 폭력배 5~6명이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마을에 난입하여 주민 5명 부상

3) 성동구 금호6 재개발 지구

▶ 94년 1월24일 10:00 (주)적준요역 마을에 난입 주민 2명 부상

▶ 94년 1월27일 주민들이 강제철거 중지요구하며 조합 농성 중 (주)적준 용역 30여명 난입하여 주민 15명 부상

4) 성동구 행당2동 하왕2-1 재개발 지구

▶ 94년 4월 19일 15:00부터 무진용역 폭력배 20여명 마을에 난입하여 각목,야구 방망이, 돌 등으로 주민들 폭행 주민 15명 부상.

이중 부녀자 한명은 성추행을 당한 충격으로 정신이상 증세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폭력배들은 팬티만 입은 채 부녀자들의 가슴과 허벅지, 사타구니를 잡아 뜯는 성추행을 자행하여 대부분의 여성들은 좌측하퇴 좌상, 양측 견갑부 좌상, 우측 측두부 좌상등의 부상을 당하였고 장기적 안정을 요하여야만 했다.

5) 관악구 봉천 7-1 재개발지구(봉천 6동)

▶ 94년 3월7일 (주)적준용역 폭력배 20여명이 강제철거를 시도하여 주민 4명 부상(주민 1명 4주의 중상)

▶ 94년 3월 24일 (주)적준 용역 폭력배 10여명 마을에 난입하여 주민 6명 부상

▶ 94년 10월 21일~22일 이틀동안에 (주)적준용역 폭력배 70여명이 마을에 난입하여 주민 20여명 부상. 이중 3명은 중상을 당함.

특히 부녀자 1명의 국부를 발로 짓밟는 성추행을 범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장기 치료를 받았다.

▶ 95년 2월 16일 (주)적준 용역 폭력배 100여명의 강제철거로 주민 10여명 부상을 당하였고, 95년 3월 20일 새벽에는 폭력배 30여명이 마을에 난입하여 부녀자 한명의 팬티를 벗겨 연탄재를 쑤서 넣는 등의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97년 5월17일 (주)적준 폭력 사건으로 주민 4명 부상

6) 노원구 중계동 광석마을 강제철거 사태

▶ 94년 8월 31일 08:00 중계 본동 37번지 광석 마을에 정원특수 건설 폭력배 500여명 강제철거로 주민 40여명 부상을 당함.(전치 4주이상 중상자 6명)

▶ 94년 12월 1일~3일 동안 정원특수 건설 폭력배 800여명이 동절기 강제철거를 시도하여 주민 20여명 부상

▶ 94년 2월4일 07:30분 폭력배 200여명 강제철거를 시도하여 주민 10여명 부상(주민 1명은 안면 2도 중화상 당함)

▶ 95년 2월10일 06:00 각목, 쇠파이프, 곡괭이자루로 중무장한 조직 폭력배 50여명과 철거 폭력배 400여명이 동원된 강제철거에서 주민 30여명 부상(주민 8명 중상). 특히 이날 가재 도구가 집안에 있는 상태에서 포크레인으로 강제철거하여 주민들의 살림살이 전체가 땅속에 묻힘. 이상과 같이 중계동 광석 마을은 4차례의 강제철거 과정에서 주민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100여세대 400여명의 주민들이 천막에서 한겨울을 지냈다. 특히 주민들의 가재도구 전체가 땅속에 묻혀 막대한 재산적 손실과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다.

7) 관악구 신림 2-1 재개발 지구

▶ 94년 3월 6일 신림극장앞에서 조합 총회에 참석하려는 주민에게 대림 건설에서 사주한 조직폭력배 100여명이 집단 폭력을 가해 주민 25명이 부상을 당하였다.(주민 1인 전치 9주 중상)

8) 종로구 무악 재개발 지구

▶ 종로구 무악동 재개발지구내에 (주)적준용역 폭력배들이 수시로 마을에 난입하여 방화와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하여(30여차례의 화재 발생) 주민들이 재개발 조합에 항의 농성중 (주)적준용역 폭력배 50여명이 주민 100여명을 강금 한채 1시간여 동안 집단 폭력을 행사하여 주민 2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9) 성동구 금호1-6 재개발지구

▶ 95년 3월 15일 입산 용역의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주민 1명이 분신하며 철탑에서 투신하는 사태가 발생 하였다. 현재 이사람은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10) 강서구 신정동 신투리 택지개발 지구

▶ 95년 강서구청과 도시개발 공사에 의해 행정 대집행으로 주민 10여세대 천막 생활

11) 부천시 소사동

▶ 골프장건설을 이유로 95년 8월 28일과 9월 29일, 10월 27일 각 폭력배 50여명이 난입하여 강제철거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 주민 1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공사를 방해 하였다는 이유로 주민대표를 구속하였다.

12) 부천시 상동 강제철거 사건

▶ 택지개발지구인 상동의 주민모임 장소인 세대위 사무실에 부천시에서 강제철거를 시도하여 이에 저항하는 주민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또한 주민 10여명이 중경상을 당하였다. 부천 경찰서에서는 시청앞 합법 집회를 강제 해산 시키며 부녀자를 젓가슴이 드러난 상태로 강제 연행하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주민들을 분노케 하였다.

13) 고양시 성심마을 강제철거 사태(주택공사)

▶ 95년 12월 22일 고양시와 주택공사에 의해 동절기 행정대집행으로 주민 30여세대 100여명 천막 생활 시작. 이후에도 주민들이 설치한 천막마저도 10여차례나 강제철거를 하여 주민들은 많은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14) 동대문구 이문3 재개발지구

▶ 96년 1월11일 (주)적준용역 폭력배 300여명이 마을을 봉쇄한채 강제철거를 시도하여 주민 16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 96년 10월 10일 (주)적준 폭력배 10여명 난입하여 집기를 부수는등 난동으로 주민 다수 폭행을 당함.

▶ 이후 96년 10월14일 10여명의 (주)적준용역 폭력배 10여명으로 부터 주민들이 집단 폭행을 당하여 주민 2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 10월 15일 폭력배 15명이 오함마와 각목으로 무장한채 지역에 난입하여 하루종일 주민들을 집안에 강금한 채 마을을 장악하고 난동과 폭력을 행사 하였다.

▶ 10월 16일 오전 9시부터 폭력배 40여명이 지역에 난입하여 오

후2시까지 주민들에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 10월 27일 20여명의 폭력배 난입으로 주민 4명 부상, 12월 26일 폭력배 10여명 마을 난입하여 집단폭력으로 주민 다수 부상을 당하였고 이외에도 20여차례에 걸쳐 폭력배가 난입하여 주민들에게 집단 폭력을 행사하여 주민 10여명이 폭행을 당하였다.

▶ 96년 4월3일 (주)적준 폭력배 200여명이 강제철거를 하여 주민 4세대 10여명이 독방에서 천막생활을 시작 하였으며, 4월 20일 다시 폭력배 200여명이 강제철거를하여 주민 8세대 300여명이 중랑천 독방에서 천막 생활을 하였다.

15) 하왕 1-3 재개발지구

▶ 95년 2월 21일 (주)적준 용역 소속 폭력배 5명이 손도끼와 각목으로 무장한 채 지역에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주민 다수가 폭행을 당하였다.

16) 봉천 5동 재개발 지구

▶ 95년 3월23일 인덕건설 폭력 사건으로 주민 4명 부상

▶ 95년 5월20일 인덕건설 폭력사건으로 주민 8명 부상. 이외에도 10여차례의 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3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 하였으며 용역직원의 폭행으로 주민 한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다.

17) 봉천 2동 재개발 지구

▶ 95년 5월10일 (주)적준의 폭력사건으로 주민 11명 부상

18) 가락 재개발 지구

▶ 97년 9월10일 쌍용건설 직원들이 세입자 납치,감금 폭력사건으로 주민 8명 부상

19) 암사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 96년 97년에 수 차례의 폭력 사건으로 주민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 하였다.

20) 용인군 수지2 택지개발지구(토지공사)

▶ 96년 2월5일 강제철거로 주민 1명이 사망하였으며, 2명이 중상을 당하였다.

21) 청량리 1동 재개발 지구

▶ 94년 5월11일 새벽 4시경 태옥개발 용역 폭력배 6명이 쇠파이

프와 생선회칼 등 흉기를 들고 마을에 난입하여 주민 9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외에도 4차례의 폭력 사태가 있었음.

▶ 97년 7월 29일 33세대 가이주 단지가 태옥건설 철거 폭력배에 의해 강제철거를 당하였다.

22) 노원구 중계 4-2지구

▶ 95년 6월7일 밤 11경 (주)적준 소속 폭력배 3인이 부녀자 3인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 하였다. 술에 취한 철거폭력배 3인은 마을 내 교회목사 부인 등 3인의 집에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는 주민에게 다가가 젓가슴을 10여차례 비틀며 옷을 벗기며 성추행을 하였다. 이때 주민들은 각기 2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이사건을 수사한 노원 경찰서 수사과 형사 또한 “아줌마가 이따서 그랬겠죠”하면서 성희롱조의 조사로 주민들을 분노케 했다.

23) 노원구 양돈 마을 재개발 지구<(주)적준>

▶ 97년 5월9일 행정대집행으로 33세대의 강제철거를 자행하여 10여명의 주민이 중랑천 독방에 천막을 설치 하였다. 이는 민선단체장 하에서 행해진 행정 집행이라는데 충격을 주는 사건 이었다.

24) 난지도 행정 대집행

▶ 난지도 무허가 가건물 30여 세대가 마포 구청에 의해 97년 7월 행정 대집행을 당하여 주민 100여명이 길거리로 쫓겨났다. 이도 또한 민선 단체장에 의해 저질러진 행정 집행이며 이들의 집마저도 강제 압수하여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행위를 저질러 충격이 더한 사건이다.

25) 미아 6동 재개발 지구<(주)적준>

▶ 96년 3월27일 (주)적준 소속 폭력배 50여명 세대위 사무실 난입 주민 폭행 주민 5명 부상

▶ 96년 4월 26일 (주)적준 소속 폭력배 50여명 강제철거 과정에서 주민 집단 폭력 행사하여 주민 12명 부상

▶ 96년 9월19일 (주)적준 소속 폭력배 200여명 강제 철거 시도

▶ 97년 5월20일 (주)적준 소속 폭력배 80여명 강제철거 시도 주민 1명 부상

26) 미아7동 재개발 지구

▶ 96년 10월 29일 (주)적준 용역, (주)거산 안전관리 용역, (주)인덕 씨티씨 용역 폭력배 750여명이 강제철거를 시도하여 주민 1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 97년 3월 16일 (주)적준 용역, (주)거산 안전 관리 용역, (주)인덕 씨티씨 용역 폭력배 300여명이 강제철거를 시도하여 주민 8명 부상. 이날 폭력배들은 마을 외각을 10여시간 봉쇄한채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중앙경찰서는 사건자체를 방조하여,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 하였다.

▶ 97년 5월 20일 (주)인덕 씨티씨 용역 폭력배에 의해 주민 2명이 집단 폭행을 당하여 각각 전치 4주의 중상을 당하였다.

▶ 97년 5월 28일 (주) 적준 용역, (주)거산 안전 관리 용역, (주)인덕 씨티씨 용역 폭력배 400여명이 포크레인 8대를 앞세우고 강제 철거를 시도하여 주민 1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미아7동은 3개 용역사 폭력배 20여명 계속 상주하면서 상습 폭력 행위와 방화를 일삼아 100여차례의 화재가 발생 하였다.

27) 전농 3동 재개발지구

▶ 96년 7월 25일 (주)적준 소속 폭력배 300여명과 청량리경찰서 300여명이 강제철거를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철탑에 화재를 일으켜 주민 1명이 사망하는 등 주민 10여명이 중상을 당하였다.

▶ 이외에도 전농 3동에서는 3차례의 (주)적준의 폭력사태가 있었으며 천막생활을 하던 7세대를 98년 2월12일 (주)적준과 청량리 경찰서에서 폭력철거를 시도 하였다. 전농 3동 사건으로 총 176명이 청량리 경찰서에 의해 연행 당하였고 총 25명이 구속 당하였으며 51명이 불구속 입건 되었다.

28) 용산구 신창동 재개발 지구

▶ 97년 5월 19일 입산건설 폭력배 주민폭행으로 2명 부상

29) 영등포구 신길4동 신길 2-3지구<(주)적준>

▶ 97년 4월 주민 모임 중 (주)적준 폭력배 난입 하여 집단 폭력을 행사하여 주민 다수 부상을 당하는 등 2차례의 폭력사태가 있었으며, 97년 4월 7일부터 5월 27일 사이 방화 의혹의 화재가 10여차례 발생하였다.

30) 성북시장 재개발 지구

▶ 용역 투입, 10여차례 폭력사태 발생(별첨)

31) 도원동 재개발 지구

▶ 97년 4월 29일 세입자 60여명이 대책을 논의하던 중 (주)적준 소속 폭력배 50여명이 난입하여 이태교씨등 주민 11명이 중.경상을 당함

▶ 97년 6월 10일 (주)적준 소속 폭력배와 주민 간 폭력사태로 수명 부상. 이과정에서 부녀자 2인에 성추행(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찢은후 가슴을 만지며 욕설)

▶ 97년 12월16일 (주)적준의 주민폭력으로 3명 부상

▶ 98년 2월7일부터 사람이 살고있는 집을 불법철거를 시작하여 30여세대 120여명이 길거리로 쫓겨났다. 이 과정에서 주민 2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3월30일에는 철탑에 농성중인 주민에게 식량을 전달하려는 2명이 집단 폭력과 방화로 지금도 사경을 헤메고 있는 실정이다.

▶ 4월 23일 - 24일 행정 대집행

▶ 2월 7일부터 4월22일까지 불법 강제철거를 묵인하거나 동조해 온 용산구청에서는 도원동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주민들에 유화제스처를 쓰면서 한편에서는 살인철거를 계획하여 행정대집행을 시도 하였다. 경찰병력 1,000여명과 (주)적준 폭력배 300여명이 동원된 강제철거는 철거 폭력배와 경찰병력과 완벽한 호흡의 군사작전 이었다. 그동안 불법 살인철거 과정에서 단 한명의 (주)적준 폭력배와 조합원들을 연행조차 하지 않던 용산 경찰서에서는 행정대집행에 방해 했다는 명분으로 5명을 구속 하였으며 40여명을 불구속 입건 하였다. 이후 용산 구청 항의 농성중 5명이 추가로 구속 되었으며 수명의 부상자가 발생 하였다. 이로서 도원동 강제철거 사태로 10명의 구속자가 발생 하였다.

32) 행당 1-2 재개발지구<(주) 적준>

▶ 96년 10월 14일 (주)적준 소속 폭력배 20여명이 오합마, 각목 등으로 무장한채 2시간동안 마을을 누비며 폭력을 행사하여 주민 다수가 부상을 당하였다. 이날 적준의 임하영 소장은 옷옷을 모두 벗고 마을의 여성들에 성폭언으로 위협하여, 온 마을이 쑥밭으로 변하였다.

▶ 12월 2일, 12월 9일, 12월 18일 등 수차례의 강제철거와 폭력행위로 주민 다수가 폭행을 당하였다.

▶ 97년 4월3일 (주)적준 소속 폭력배 300여명이 포크레인을 앞세우고 강제철거를 시도하여 담벼락이 붕괴되어 주민들이 2미터 밑으로 굴러 주민 3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 97년 4월 8일 폭력배 적준의 임하영소장등 4명이 과도를 들고 주민들을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주민 2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 97년 9월 1일 ,2일, 5일 계속된 강제철거 시도로 주민 10여명 부상

33) 남가좌동 재개발 지구<(주)적준>

▶ 98년 5월 29일 (주) 적준 용역 폭력배에 의해 부녀자 성폭행 사건이 있었으며 3차례의 폭력 사태가 있었다. 현재 5세대가 짐까지 압수당한 상태에서 천막 생활을 하고 있다.

34) 방배동 재개발 지구

▶ 거산 용역에 의해 97년 4월경 3차례의 폭력 사태가 있었다.

35) 상계 3-1재개발 지구<(주)적준>

▶ 97년 7월경을 전후 하여 (주)적준용역으로부터 5차례의 폭력 사태가 있었다.

36) 상계 3-2재개발 지구<(주)적준 >

▶ 96년 (주)적준의 폭력사태로 4명의 중상자가 발생 하였다.

37) 수색 재개발 지구

▶ 96년 11월 6차례 (주)적준 폭력배에 의해 폭력 사태가 발생 하여 20여명의 부상자와 주민 1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 하였다.

38) 현저 재개발 지구

▶ 태옥 개발 용역에 의해 폭력 사태가 있었으며 현재 10여세대의 미해당자 문제가 남아 있다.

39) 흥제동 재개발 지구

▶ 96년 (주)적준 용역에 의해 10여차례의 크고 작은 폭력사태가 있었으며 주민 1명이 구속 되는 사태가 있었다.

40) 서초구 대아 1지구

▶ 자연 부락으로 주소지가 없는 무허가 판자촌이며, 96년 10월경 3차례의 폭력 사건이 있었다.

41) 서초구 대아 2지구

▶ 대아 1지구와 같이 96년 3차례의 폭력 사태가 발생 하였다.

42) 금호 6 재개발 지구

▶ 95년부터 96년도에 (주)적준에 의해 6차례의 폭력철거 사태가 발생 하였으며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 하였다.

43) 금호 8 재개발 지구

▶ 고려 개발 용역에 의해 95년 수차례의 폭력사태가 발생 하였다.

44) 증암 재개발 지구

▶ 96년 (주)적준에 의해 5차례의 폭력 사태가 발생하여 1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 하였으며 특히 적준에서는 동내건달들을 조직화 하여 폭력 행위에 가담 시켰다.

45) 옥수 8 재개발 지구

▶ 94년부터 95년도에 (주)적준에 의해 10여차례의 폭력 사태가 발생하여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 하였다.

46) 도봉 군인 아파트 재건축 지역

▶ 95년도에 (주)거산에 의해 부녀자 성추행 사건이 발생 하는 등 5차례의 폭력 사건이 발생 하였다.

47) 양천구 신정 재개발 지구

▶ 94년 (주)적준에 의해 임산부가 폭행 당하는 등 수차례의 폭력 사태가 있었다.

2. 문제와 대응

이상의 자료에서 보듯이 최근 4년 동안 서울에서만 50여개의 개발 지역에서 약 200여차례의 폭력사건과 강제철거 사건이 발생 하였다. 철거 지역 주민 부상자만도 1,000여명에 이르고 80여명이 구속 되는 등 300여명의 주민들이 사법처리 됐다. 2,3일 구류나 소액의 벌금형까지 따지면 이 또한 몇백명의 숫자가 될 것이다.

이는 본 연합에서 관여하지 않은 지역이나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를 종합한 수치이다.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 지역에 4~5명이 상주하면서 지속적 폭력을 유발하고 있다.

▶ 철거 폭력배들은 각 개발지역마다 용역사 직원을 빙자한 폭력 배 5-6명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정식직원이 아니라는 것은 밝혀진 사실이다. 이들은 용역 회사 간부들의 인맥을 통하여 전과자와 사고를 치고 피신한 폭력배들이 대부분이다. 개발지역이 폭력전과자의 피신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철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협박하여 지역 밖으로 몰아내는데 주력 하고 있다. 이들 폭력배는 팬티 차림으로 마을을 활보하거나 우범화하여 주민들이 살 수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편이다.

2) 방화의혹

▶ 재개발 지역 내에 용역회사 직원이라는 폭력배들이 상주하면서부터 재개발 지구내 화재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무악동의 30여차례의 화재, 신길동에 10여차례의 화재, 삼양동(1,6,7동)재개발 일대에 3개월동안 90여차례의 화재 사건 등 방화의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단 한차례의 방화범을 검거한 일이 없다.

3) 조합을 협박하여 잔재 등 각종 이건을 따냄

▶ 용역사의 폭력배들은 조합도 협박과 공갈의 대상이다. 이들은 조합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여 잔재처리 등 각종 이건을 따내는 일도 하고 있다.

4) 여성들에게 상습적 성추행

▶ 중계4-2지구 (주)적준 소속 직원 3명이 부녀자 3인에 성추행 사건, 과다한 용역비의 산출로 철거지역이 폭력배의 온실로 변하고 있다. 특히 근래에는 장애인들까지 용역회사를 설립하여 재개발 현장에 투입되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주)적준 등 용역회사에서 일을 경험한 폭력배들이 동네건달들을 모아 용역회사를 설립하여 한탕을 노리고 있다. (주)적준에 있던 전직 직원의 말을 빌리면 용역비 중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용은 20%정도라는 것이다. 오히려 30% 정도가 조합이나 건설회사 등에 로비자금으로 투입되며 적어도 50%가 목돈으로 벌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동네 건달들에게는 한탕에 의해 한밑천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이들은 동네의 거주자들로 관내 경찰과 조합 관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세입자와 조합원들에 위협의 대상이다.

<별첨 자료 : 재개발 지구 용역비>

5) 공권력의 문제

▶ 강제철거 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의 자세는 거의 무신경, 무반용이다. 오히려 철거 폭력배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예로 행당 1-2지구 97년 9월 30일 사건에서도 주민들은 외부에서 집회를 갖기로 신고가 되어 있는 날 집달관을 동원하여 강제철거를 시도 하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민들을 경찰에서는 차단하여 안에 고립된 주민들이 성추행과 집단 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도원동 사건의 경우에도 지난 4월 23일 행정 대집행 전까지의 강제철거는 불법 철거이다. 이미 4월 22일까지 30여채의 가옥을 (주)적준과 조합에서는 불법 철거를 강행하여 수십명의 부상자와 수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하였다.

용산 경찰서 경찰관들과 전투경찰 병력이 마을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불법 철거와 폭력 행위를 방치한 용산 경찰서에서는 22일 행정 대집행을 방해했다는 명분과 구청에 항의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현재 11명의 주민이 구속 되어 있다.

특히 이들은 폭력현장에서는 의례적으로 마을을 봉쇄하고 전기, 전화를 절단하여 외부와의 연락을 통제한다. 이들은 몇시간이고 마을 전체를 불법으로 봉쇄한다. 하지만 어느 경찰서에서도 이들의 불법 행위를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오히려 협조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도원동의 경우에도 몇 개월 동안 펜스를 설치하고 주민들을 강금하는 등 출입을 통제하는 불법 행위를 하였으나 용산 경찰서에서는 당연한 듯 공동으로 펜스 경비를 함께 하고 있었다. 또한 (주) 적준 용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용역회사가 경찰청 허가 사항인 경비용역 면허가 없다. 하지만 이들은 버젓이 경비용역 업무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고소 고발 사건의 수사 또한 일방적이다.

▶ 대다수의 주민들은 법을 잘 모른다. 경찰서만 봐도 겁부터 나는 순진한 사람들이 대부분 철거 지역 주민들이다.

철거 폭력배들은 의례적으로 일방적으로 폭력행위를 저질러 놓고 자해를 하여 함께 고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또한 재개발 현장의 폭력 행위를 사진으로 증거해 놓는다는 것은 무척 힘들다. 철거 폭력배들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집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감히 사진 촬영이나 비디오로 증거를 확보 해놓기가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폭력 철거 현장에는 반드시 경찰 직원들이 나와 있어 관할 경찰서 나름대로 증거를 확보 하고 있다. 이번 행당동 성추행 사건에서도 관할 경찰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목격 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증언이다. 하지만 철거 폭력 사건의 고소 고발 사건은 거의 무혐의 처리 되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인 주민들만 구속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병원비나 생계를 감당 하지 못한 주민들이 돈 몇푼과 공갈에 합의해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6) 행정기관의 무대응

▶ 관할 구청의 경우에도 세입자의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 재개발 조합의 관리 감독권이 있는 구청은 철거 폭력배의 폭력행위에도 제3자라는 입장만 내세운다. 오히려 세입자들의 이사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제철거의 부당성이나 세입자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원구청이나 용산구청, 마포구청에서는 행정대집행을 강행하여 주민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지만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 성동구청의 경우에도 사회적 초관심사로 떠오른 행당동 문제를 오히려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원망하며 이주를 종용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7) 용역 업체의 형태와 흐름

▶ 철거 용역사의 시초는 (주)입산이다. 입산은 현재 태옥 건설, 신한 환경 등 3개의 용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입산의 실질적 사주는 현 집권당의 유명 정치인으로 알고 있다.

(주)적준은 입산 직원이던 정숙종과 김영배등이 독립하여 설립 하였으며, (주)적준 초기에는 거산, 인덕 등과 함께 각축을 벌이다 94년부터 재개발 현장을 거의 독점하였다. 이의 배경에는 정치적 배후와 조직폭력 조직과 연계, 엄청난 로비력을 뒷받침 하고 있다는 정설이다. 실제로 서울 지점에서는 철거 폭력조직에 대하여 몇 년 동안 추적하여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데는 다른 원인이 있다. 검찰에서는 (주)적준의 경우 범서방파의 한 계보라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다.

이제 용역사들이 핵 분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주)적준이나 입산 등지에서 일을 배운 폭력배들이 동네 건달들을 모아 한탕을 노리며 신생 용역사를 설립하여 조합과 결탁하여 마치 재개발 사업이 마을 건달의 장이 되고 있다. 정릉4동에 투입된 협송주택이나 동무건설 등이 이러한 경우이다. 협송주택은 정릉 건달들이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하였으며 동무건설 또한 자본금 2억을 들여 중앙동 건달들이 만들었고 장애인을 앞세워 일진공영이라는 용역사를 중앙동 미아리 건달들이 만들었다. 이들은 마을 유지행세를 하며 폭력을 앞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해 들어가고 있다.

이들 앞에 조합원들은 숨죽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8) 적준의 형태

- 철거 폭력배의 조직 동원 루트

▶ 각 용역사 별로 정식 직원은 10명 미만이다. 적준 또한 정식 직원은 10여명에 불과하다. 현장 소장까지 임시직으로 고용한다. 각 현장별로 5-6명씩 상주하는 자들까지 적준의 상시 동원 능력은 100여명이다. 이들외에 300여명 정도는 서로의 인맥을 통하여 일당으로 고용한다. 철거현장에 배치 될때는 이들 중 5,60명을 선봉대, 기습조를 편성한다. 이들은 직원이나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은 폭력배로 편승 한다. 이들은 대부분 사건을 일으키고 잠잠해질때 까지 잠적해 버리는 수법을 쓴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현장 소장이 모든 책임을 지게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 조직폭력배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95년 중계동 광석마을의 경우가 전문 폭력배를 고용한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운동선수 출신의 고용이다. 복싱이나 레슬링, 유도운동을 하다 은퇴한 운동 선수들을 현장에 투입하여 폭력배로 전환시키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유명한 복싱 선수인 유명우가 (주)적준의 이사였으며, 몇몇 운동 선수가 적준의 이사로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외에도 일력시장을 통하여 얼마든지 일용직을 고용하는 경우이다.

철거 용역비 현황

지구명	철거용역사	용역비(철거동)	지구명	철거용역	용역비(철거동)
신당3	(주)적준	34억(1,825)	정릉4	협승주택	32억(1,097)
신당5	(주)동부건설	24억(675)	상월곡	(주)적준	12억(550)
도원	(주)적준	18억(780)	길음3	(주)적준	12억(619)
산천	입산산업(주)	16억(382)	동소문	입산개발	9억(1,848)
금호8	고려개발	26억(570)	미아1-1	(주)적준.인덕 .거산(주)	40억(1,994)
금호6	(주)적준	19억(1,061)	미아1-2	(주)인덕CTC	15억(709)
하왕1-2	인덕건설	4억(143)	미아5	(주)적준	16억(881)
하왕1-3	(주)적준	7억(275)	수유2	(주)신한환경	15억(214)
행당-1	(주)적준	6억(324)	하계1	(주)적준	22억(165)
행당-2	(주)적준	17억(534)	수색2-1	(주)적준	11억(491)
창랑리5	청무건설	5억(182)	냉천	(주)적준	7억(130)
답십리9	입산개발	18억(407)	남가좌7	(주)적준	11억(496)
전농4	황보건설	14억(1,051)	시흥1	주연건설 정주공영	72억(1,959)
이문2	산천개발	19억(476)	신길2-3	(주)적준	19억(423)
제기2	태욱개발	9억(278)	봉천4-2	(주)광암공영	29억(1,394)
전농5	동무건설	12억(200)	봉천2-2	(주)적준개발	40억(1,034)
-	-	-	봉천3	(주)인덕CTC	39억(1,954)
-	-	-	봉천8	(주)적준	25억(1,162)

재개발지역의 철거용역 분포

철거용역사	지역분포
(주)적준	신당3, 도원, 금호6, 하왕1-3, 행당-1, 행당-2, 상월곡, 길음3, 미아1-1, 미아5, 하계1, 수색2-1, 냉천, 남가좌7, 신길2-3, 봉천8
(주)동무건설	신당5, 전농5
입산산업(주)	산천
고려개발	금호8
인덕건설	하왕1-2, 미아1-1
청무건설	청량리5
입산개발	답십리9, 동소문
황보건설	전농4
산천개발	이문2
태옥개발	제기2
협승주택	정릉4
거산(주)	미아1-1
(주)인덕CTC	미아1-2, 봉천3
(주)신한환경	수유2
주연건설	시흥1
정주공영	시흥1
광암공영	봉천4-2
(주)적준개발	봉천2-2

워크샵 발제 2

불량주택 합동재개발에서 나타나는 주거권 유린-- 강제철거 감시단의 경험

박문수 (아시아 주거권 연합-한국 강제철거감시단장)

1. 구청과 시청과 경찰서와 재개발 조합이 모두 다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무시하면서 사업을 함께 수행한다.

예를 들면--

97년 9월 30일 08시 30분 해당 1-2 재개발지역 세입자 주민들이 주거 생존권을 위해 사전 집회 신고된 장소로 거리 홍보를 하러 동네를 비운 사이, 300여명의 전경과 500여명의 철거용역, 일용 인부들에 의해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다.

△ 09시경 세입자대책위원회 사무실에 남아있던 4명의 세입자 주민들은 사무실을 철거하려는 40-50여명의 적준 철거 용역반들에 저항하였으며, 용역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20여명의 주민들은 전경들에게 동네가 외부로부터 폐쇄된 상태에서 잔여 주민과 함께 잔인하게 집단 구타를 당하였다.

△ 이러한 과정에서 실신한 주민이 거둬 구타당하여 6주 이상의 상해를 당하고, 한 주민은 안면구타를 당하여 19바늘을 꿰매었으며, 한 아주머니는 옷을 전부 벗기운채 구타를 당하는 성추행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 이 현장에는 주택개량과 직원이 있었고, 성동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폭력사태 현장에서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신변보호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고 있었다.

△ 생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는 가옥명도 집행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었는데, 그러나 아무런 명도 집행절차가 수행되지

않았고 결국 세입자 주민들은 아무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채 갑작스런 강제철거를 당하므로, 이에 항의하려 했으나 마찬가지로 심한 구타를 당해 많은 주민들이 최소 2,3주 이상의 극심한 부상을 입었다.

△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살림살이가 많이 파손되고, 귀중품, 교과서, 학용품 등이 그대로 묻혀 어린아이까지 학교에도 가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저녁 늦게 천막을 치고 임시 거처를 마련하려 했으나 역시 협박과 폭력에 의해 저지당하여 남녀노소가 길바닥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 따라서 이번 사태는 경찰서, 구청, 조합, 용역의 사전 모의에 따라 철거가 진행됨으로서, 명도집행과 무관하게 수많은 비인간적인 폭력에 따른 주민 부상자가 속출한 가운데 심각한 인권유린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증언한다.

2. 특히, 경찰들이 조합의 편을 들고 항의하는 세입자들의 신변보호를 거절한다.

1. 행당1-2 재개발 구역(행당 1동 128번지 일대)은 1995년 11월 23일 성동구청이 재개발 조합을 설립 인가함으로써 현재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인 바, 그동안 (주)적준용역 소속 철거반들은 지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0여 차례의 집단 폭력과 위협을 가하여 수많은 주민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97년 6월 상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물어준 사실도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철거깡패들은 계속해서 지역내에 상주하면서 오합마, 각목 등을 들고 설치면서 상시적으로 주민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일삼아왔습니다.

3. 이처럼 주민들이 극심한 불안을 겪으면서 폭력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민생치안 담당자인 성동경찰서, 파출소 등에

수십차례의 신변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방관하였고, 수많은 주민 고소, 고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폭력 근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따라서 최근 1997년 9월 30일 오전 9시경, 그야말로 치안부재 상태에서 지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전쟁을 방불케하는 잔인한 폭력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5. (주)적준용역 소속 김윤재(가명 김영배) 전무, 정태완(가명 정용팔) 이사, 임화영(행당 1-2 지구 현장 소장), 김산식(행당 1-1지구 현장 소장), 김철호(신당동 재개발지구 현장 소장), 방차장, 박부장 등 300여명의 폭력배가 행당 1-2지구에 난입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함께 주민 30여명을 무차별로 짓밟고 폭행했으며, 나이드신 할머니를 걷어차고 아주머니를 발가벗겨 성폭행을 가하는 등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을 가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6. 한편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여 주민들은 현장에 있던 성동경찰서 박재동(정보과 형사) 등에게 신변보호 요청과 수차례의 112 신고, 성동경찰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10여명의 형사들은 이를 지켜보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전과자, 조직폭력배들로 구성된 철거깡패들의 행태를 방조하면서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7. 더구나 주민 10여명이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강제 폭력 철거당한 주민들이 저녁 늦게까지 또다시 폭력과 협박을 받으면서, 주민들의 4차례 112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현장에 아예 출두하지 않아, 동네가 치안부재의 불법 난동의 아수라장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치안 행정당국인 성동경찰서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3. 감시단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 1) ACHR 사무국장(페르난데스)에게 각국 나라들이 한국에 항의 편지를 보내도록 요청했다. (예; 서울시장, 강덕기, 외무부장관 조해령 등)
- 2) 진상 조사 활동 제1차 보고서는 다음 기관에 우편 발송한다.

- 다 음 -

- ① 서울 시장 강덕기, 외무부 장관 조해령, 건설교통부 장관
- ② 재개발 철거가 진행되는 구의 구청장
(동대문구,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관악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등)
- ③ 해당 국회의원, 구의원
- ④ 국회도서관과 국립도서관(서초동 소재)
- ⑤ 해당 연구기관
- 국토개발연구원(고철 박사), 주공 주택연구소, 시정개발연구원, KDI 등

* 이상 기관에 우편 발송하기 위해 단장 박문수 명의의 편지를 작성, 동봉한다.

3) 행정적 대안 모색에 관하여는 다음 입장을 취한다.

- ① 우선 주거연합 중앙, 지부, 현장 등에서 요구되어야 하고 감시단은 압력을 행사한다(제1차 보고서 등을 통하여) - 행정적 대안은 해당 관청이 하도록
- ② 이후 상황을 보아가며 서울시 주택국, 건교부 등에 서면 또는 방문 질의할 수 있다.

4) 경찰청 대처에 대하여

- ① 감시단 명의의 고발장을 준비하고, 경찰청 항의 방문과 병

행하여 조치한다.

- ② 지난번 주거연합이 행한 고발장(97. 5)의 효과를 분석해 본다.

5) 강제 명도집행 절차상 법원에 대한 대처에 대하여(이일우 변호사 상담, Fax 532-7470)

- ① 명도 판결, 강제 명도집행의 경우 판결 이의는 당시 대처했어야 하며, 강제 집행도 이미 종료 상태이므로, 이의 자체의 상대가 소멸했으니 의미가 없다 하였다.
- ② 따라서 명도 집행 절차상 폭력 등의 결과가 있으므로, 집행상 문제를 적시하여 피해 당사자 주민과 감시단 연명으로 동부지원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때의 효과는 진정서에 따른 법원의 자체 조사가 기대된다.
- ③ 지원장 항의 방문은 비서실을 통해 접촉 방문할 수 있으나 면담성사 요부는 불투명하다.
- ④ 명도 집행과 관련한 조합과의 합의서가 있으니, 법률상 책임자는 재개발 조합이 된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에 피해당사자 명의로 상해 치료비, 물품 손실 등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법에 호소할 경우 피해 물품 등의 손해 배상은 증거 확보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재개발 조합과 직접 협상 대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 ⑤ 나머지 가옥에 대한 명도에는 소환장이 오면 즉시 당사자들이 합의를 법원에 제출하여 미연 방지책을 강구할 수 있다.

5) 제정구 의원실이 취한 내무부 장관 질의서의 결과를 지켜본다.

6) 기자회견 등은 성폭력 대책과 연계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기도회는 반민사목위원회 이름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후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8) 감시단의 위상은 강제철거의 조사, 보고서 발간, 사회 여론조성 등에 초점이 있어야 하고, 그외 사안은 감시단 고유의 역할을 적절히 찾아 행동할 수 있다.

9) 감시단은 우선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므로서 본 사건 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도 감시단 활동의 영향력을 높여갈 수 있다.

철거폭력의 대명사 적준용역(現 다원건설)과 우리의 대응

고상만 (천주교 인권위원회)

87년 이후 재개발지역 철거 작업을 소위 철거 용역업체가 대행하게 되면서부터 슬하게 불거져온 철거폭력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최근들어 끊임없는 철거 용역에 의한 폭력 행사는 그 잔혹성에 있어서나 빈도수에 있어서 심각한 인권 유린임과 동시에 민주사회에서 용납될수 없는 범죄행위다.

특히 지난 4월 중순경 서울방송 시사 프로그램 '뉴스 추적'에서 보도한 용산 도원동 재개발 지역에서의 사례는 많은 이들에게 더 이상 철거 폭력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그것은 누구의 주장이 더 옳은가의 문제를 차치하고 어떻게 서울 한 북판에서 이토록 심각한 사태가 방치되고 조장될 수 있는 것인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제 철거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 문제는 물론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수없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가장 최근 들어 발생한 사건만 해도 97년 7월 전농동 재개발지역에서의 주부 박순덕씨 사망 사건이 그랬고 96년 관악 봉천 6지구 재개발 지역을 비롯하여 행당 2-1 지구 재개발 지역에서의 주부 성추행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한편 이러한 철거폭력의 중심에는 이른바 적준용역(98년 3월 현재 '다원 건설로 회사명 변경)이라는 철거 용역 업체가 늘 대명사처럼 존재하고 있다. 철거 폭력 사건 대부분이 바로 이 적준용역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적준은 가는 곳마다 폭력의 대명사로 부각되어 왔다.

다음은 적준에 의해 그 동안 자행되어 왔던 대표적인 폭력 사례의 일부이다.

<적준용역에 의해 자행한 폭력사례 일부>

▶ 94년 발생한 폭력 사례

1. **임산부 폭행** : 94년 1월 12일 서울 양천구 신정 7동 제5지구 재개발 지역(일명 칼산 철거민 대책위원회)에서 동철기 강제 철거에 나선 적준용역 직원 70여명이 항의하는 임산부 유남숙씨 등 주

민 3명을 집단 폭행. 그러나 경찰은 주민 대표 3인을 치상 등의 혐의로 연행, 구속.

1. 주민 집단 폭행 : 94년 4월 19일 성동구 행당2동 하왕2-1지구 재개발지역에서 적준용역 직원 20여명이 주민 집단 폭행, 10여명 부상.

1. 회칼 폭력 : 94년 5월 11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 1동 재개발지역 가수용단지에서 적준용역 6명이 술에 취한 채 회칼과 쇠파이프 등을 들고 규찰중인 주민과 충돌, 주민 9명 부상.

▶ 95년 발생한 폭력 사례

1. 손도끼 등 흉기를 동원한 철거민 집단 폭행 : 95년 하왕 1-3 지구에서 강제 철거에 항의하는 철거민에게 용역 깡패들이 손도끼를 들고 위협, 폭행하고 주부들 앞에서 옷을 벗는 등 극심한 행패를 부림. 당시 각 언론사에 이 사진이 게재되어 철거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논란이 됨.

1. 주부 성추행 및 부당 구속 : 95년 4월 26일 관악구 봉천 6동 재개발지역에서 당시 철거대책위 위원장이었던 주부 전철순씨를 집단폭행후 바지를 벗겨 하체에 연탄재를 뿌리는 등 인간적 모멸감을 주는 성추행 자행. 당시 인권단체 대표자 등이 연대하여 관악경찰서에 적준용역 대표 정숙중씨 등을 상대로 고발장 제출. 그러나 경찰은 철거 과정에서의 저항을 이유로 피해자인 전씨를 업무 방해등 혐의로 구속시키고 적준 관계자 3인은 소환조사후 무혐의 처분.

1. 박균백씨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분신,투신 : 95년 5월 서울 금호 1-6지구 재개발 지역에서 18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하고 영아를 비롯한 20여명의 주민이 강제 철거에 항의하며 농성하던 중 적준용역이 망루를 강제 철거. 이 과정에서 자신의 3살, 6살 난 딸과 함께 망루 위에서 농성하던 철거민 박균백씨가 망루가 무너지려 하자 철거 용역에게 철거 중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신후 투신한 사건.

▶ 96년 발생한 폭력 사례

1. 주부 신연숙씨 사망 사건 : 96년 용인 수지 지구에서 주부 신

연속씨등 철거민들이 망루에서 장기 농성을 하며 가 이주 단지 조성을 요구하며 농성중 망루 강제 철거에 나선 적준용역에 의해 화재가 일어나자 뛰어내리다 사망한 사건.

▶ 97년 발생한 폭력 사례

1. 대책위 구성을 위한 회의 도중 집단 폭행 : 97년 6월 서울 용산 도원동에서 재개발사업을 앞두고 세입자들이 주거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던 도중 적준용역측이 들이닥쳐 철거민 이태교씨등 10명을 집단 구타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

1. 부녀자 집단 폭행 : 97년 6월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이전 및 보상 문제로 철거대책위를 구성하여 노력 중이던 철거민 이복순씨등 5명이 적준용역에 의해 집단 폭행 당한 사건.

1. 부녀자 폭행사건 : 97년 6월 용산 도원동에서 적준용역 철거반원 김성진 등 3명이 철대위 프랭카드 내용을 이유로 시비를 걸어 정정남(40세, 여)씨등 부녀자 2명에게 폭력을 행사. 용산경찰서측은 상호폭력 행사로 처리함.

1. 주부 박순덕씨 사망 사건 : 97년 7월 서울 전농동에서 강제 철거에 저항하며 망루 위에서 농성중인 철거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철거 용역이 망루 밑에 이불, 페타이어 등을 놓고 유류를 이용, 방화함으로써 화재가 발생. 이로 인해 망루에 불이 붙자 농성중이던 철거민들이 지상으로 뛰어내리던 도중 두아이의 어머니인 주부 박순덕씨가 사망한 사건. 또한 당시 함께 뛰어내린 철거민 9명은 심한 증상을 입었음. 그러나 경찰은 부상당한김명식씨등 철거민 3명을 구속시킴.

1. 집단 폭행 및 성추행 : 97년 9월 행당 1-2지구 재개발 지역에서 이전 준비가 되지 못한 극빈 세입자의 가옥을 철거하기 위해 용역 깡패 등 900여명이 들어와 강제 철거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30여명의 철거민이 돌과 주먹으로 무차별 구타를 당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으며 특히 여자 주민 1명은 깡패 용역에 의해 옷이 전부 벗긴 채 치욕의 상태에서 구타당하여 실신하는 등 무법 천지의 폭력 철거 사태가 발생하였음.

1. 언론사 취재 기자 폭행 및 협박 : 97년 11월 행당 1-2지구 재개발 지역에 대한 사회적 물의가 일자 이에 대한 취재 차 현장을

방문한 가톨릭 신문사 서상덕기자에게 용역 깡패들이 폭력 행사. 12월경에는 적준용역 폭력 사례를 취재중이던 월간 '말' 김소희 기자를 상대로 적준용역측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 행사.

▶ 98년 발생한 폭력 사례

1. 집단 폭행 증상자 발생 : 98년 3월 용산 도원동 재개발 지역에서 용역 깡패들에 의해 단전과 단수, 음식물과 의약품 반입이 중지된 철거민들에게 위와 같은 용품을 전달하기 위해 새벽에 철거 지역에 진입하였던 이범휘(61세)씨와 백석호(28세)씨가 용역 깡패들에게 붙잡혀 무차별 구타 끝에 이범휘씨는 전신 골절상, 백석호씨의 경우는 화염 방사기에 의한 전신 3도 중화상.

<이상의 사례는 한겨레신문 등 5대 중앙일간지 신문 보도, 인권하루소식(인권운동사랑방 발행), 주간 전국연합통신(전국연합 교육선전국 발행), 97년 국회 내무위원회 국정감사 기록, SBS '뉴스 추적' 등의 자료를 근거로 확인된 내용임>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는 그동안 적준용역측이 자행한 폭력중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97년 9월 국회 내무위원회 국정 감사 기록에 의하면 적준용역은 97년 9월 현재 진행중이거나 2000년까지 시행 예정중인 서울시내 34개 철거지역중 무려 17개 지역의 용역을 대행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전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거의 매일 같은 일상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적준용역은 이러한 폭력 행사에도 불구하고 사법 처리를 받은 전례가 없다. 적준용역의 대표였던 정숙종을 비롯하여 그의 친동생이며 대표이사인 정수종, 용역깡패들을 동원하는 행동대장 격인 현 다원건설 대표이사 이금열 등 폭력 행사의 핵심들은 지금까지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박순덕씨 사망을 비롯하여 큰 범죄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들 핵심은 처벌되지 않은 채 현장소장 정도가 구속되는 선에서 사건은 마무리 되고 있어 법의 형평성이 심히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적준용역은 어떤 회사?

'적준용역' <現 다원 건설> (前 대표이사 정숙종 48세, 現 대표이사 이금열 28세, 김윤재 43세)은 지난 90년경 경비용역업(경찰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해 온 것이 드러남)과 해체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등록되어 98년 1월 당시 적준개발용역(설립 90년 11월 20

일), 적준건설(설립 92년 9월 1일), 적준산업(94년 9월 27일), 적준토건(설립 93년 6월 10일) 등 4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적준은 몇 년 사이에 수차례에 걸친 회사 명칭 변경을 해왔다. 96년 1월 3일 '적준개발' 에서 '(주)적준'으로, 그리고 이어 '적준개발 용역'에서 98년 1월에는 '다원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확인되지 않는 명칭 변경이 있었다.

한편 이처럼 짧은 기간에 자주 이루어진 회사 명칭 변경은 다른 아닌 철거 용역 과정에서의 극심한 인권유린과 폭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강제 철거 과정에서 빚어진 잔혹한 폭력으로 인해 물의가 일면 적준의 대표인 정숙종 등이 회사명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사회적 지탄에서 벗어나곤 했다는 것이다. '적준용역'이 최근 용산구 도원동 사건을 전후해 또다시 '다원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한 사례도 바로 이러한 이유로 보는 이들이 많다. 또한 '다원건설'로 명칭을 바꾸면서 대표이사였던 정숙종은 이례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동생인 정수종 대신 철거용역의 행동대장격인 이금열 등을 대표이사로 등록하였다.

<폭력으로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는 철거 용역 '적준'>

97년 국회 내무위원회 국감자료에 의하면 적준용역은 용역 대가로 각 재개발 조합과 건설 시공회사측으로부터 작게는 10억에서 40억까지 받았으며 이는 총액으로 따지면 약 5백 70억원이 넘는 막대한 액수에 달하고 있다.(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추미애 의원이 서울시측에 '적준용역이 수주한 사례 전부'를 요청한 질의에 대해 답변한 자료에서 확인)

▶ 97년 9월 현재 진행중인 재개발 지역 및 향후 철거 예정지역 (2천년까지)

재개발 지역 현황	철거 지역 대상	철거 용역비
철거지역 전체 (34개)	26,283동	66,955,372,000
적준용역 (17개 지역)	12,744동(48.48%)	31,405,972,000(46.9%)

「표」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적준은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300여개 철거 업체가 난립하는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계약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적준측은 '우리가 철거를 대행하면 현장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때문'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실제로 이 때문에 재개발 조합 등에서 적준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시 말해 적준은 철거민의 생명을 담보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 가

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적준은 잔혹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욱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적준은 이 막대한 이익을 포기할 수 없기에 그 수법이 더욱 잔혹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적준용역은 잔혹한 폭력 사용외에도 세금포탈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여러 언론 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이 의혹은 매우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와같은 여러 의혹에 대해 이제 적준은 투명한 세무조사를 비롯하여 더 이상 폭력으로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각 인권·종교·시민단체가 함께 가칭 '적준용역(現 다원 건설)불법행위 사법 처리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 슬하계 자행된 적준용역의 불법 폭력행위를 조사하고 또한 폭력집단인 적준용역을 보호하고 있는 정치적 비호세력과 탈세의혹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대응을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 폭력에 울부짖는 철거민과 그 울부짖음속에 부를 축적하는 적준과 같은 폭력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기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확신한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를 위한 (가칭)적준용역(現 다원환경) 철거폭력 사법처리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대응 방향을 제안한 자료이다.

(가칭)적준용역(現 다원환경) 철거폭력 사법처리를 위한 대책위원회

1. 제안 배경

① 지난 1983년부터 시행된 소위 '도시 재개발 사업법'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빈곤층 밀집주거지역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을 내건 주택 강제 철거 작업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재개발사업 과정은 그동안 심각한 여러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특히 이과정에서 철거 용역 대행업체와 철거 전 주거 이전을 요구하는 세입자 중심의 철거민 사이에서는 심각한 충돌이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 충돌로 인해 수년전부터 여러 철거지역에서는 사람이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노약자, 부녀자들의 심각한 부상과 잇따른 성추행 사건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철거폭력의 대명사격인 적준용역(現 다원환경으로 회사명 변경)은 가는 곳마다 폭력을 휘두르고 있고, 최근의 도원동에서의 폭력도 적준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② 더구나 위와 같은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통해 범죄 발생을 방지 해야 할 의무를 가진 경찰은 이 책임을 고의적으로 방기하거나 또는 심히 불공정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관청도 수수방관하고 있어 이들 경찰이나 구청 등이 철거폭력을 방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엄청난 폭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폭력 피해자측만 처벌을 받고, 적준용역의 가해자들에게는 관대한 법 적용이 나타나고 있어 적준과 정치권, 재계의 커넥션이 의심받기까지 하는 상황이다.

③ 이에 따라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은 4월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각 시민·인권·종교·주민단체에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2. 대책위원회 활동 목적

① 철거 용역회사중 대표적인 업체인 적준용역에 대해 그 동안의 불법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조사 자료집을 제작하여 이를 널리 알려 낸다.

② 이를 통해 그 동안 숨은 불법, 탈법 행위를 자행하고도 교묘히 사법 처리를 피해 온 적준용역의 대표이사 정숙종을 비롯하여 책임자들을 상대로 사법적 책임을 묻는다.

③ 향후 적준에 대한 지속적 행동 감시를 함으로서 이후 재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또다른 인권유린 및 폭력 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이런 사업의 성과를 통해 도시재개발법의 개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도시재개발 사업법의 개정은 이후 과제로 설정한다.

3. 대책위 구성안

① 명칭:

(가칭) 적준용역(현 다원) 철거폭력 사법처리를 위한 대책위원회

② 참여단체: 인권협 소속 단체/사회, 시민, 종교 단체 등

철거 및 철거와 직접 관련있는 빈민단체는 제외 (단, 참관형식으로 참여 가능), 이는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철거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는 직접 간여치 않을 것에 동의

하는 단체일 것.

③ 활동시기를 위 목표 달성까지로 한정하는 대책위원회임을 확실히 하고, 이후 대책은 추후 상황에 따라 논의한다.

④ 조직구성은 단순화시켜 각 단체 집행책임자급(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자)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그외의 조직은 필요시에만 가동한다.

4. 사업계획안

① 철거 현장 대책: 현재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철거 지역에서의 지원 및 피해자 구제 대책을 수립하고 철거용역에 의한 폭력 사태의 근절을 촉구한다.

② 적준 폭력행사 실태 조사: 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적준에 의해 자행된 일련의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 및 이를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언론의 환기에 기여한다. 또한, 적준의 실태 조사 및 세금포탈 문제, 그리고 적준을 변호하는 세력에 대한 조사 작업도 다각적인 형태를 통해 조사한다.

③ 법률적인 대응: 적준의 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형사 처벌 검토를 거쳐 정숙중등 적준용역 주요 관계자들의 사법 처리를 위한 형사고발을 강력히 추진한다. 또한, 철거지역에서의 폭력사태를 방조한 행정관청의 장과 해당 경찰서장을 직무유기 및 폭력행사 방조 혐의등으로 고발한다.

④ 정치적 압력의 행사: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서울시장, 대통령과 정당 등에게 건의서를 내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대표단 면담을 통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필요시 집회 또는 기자회견 등을 계획할 수 있다.

⑤ 국제주거권 및 인권단체와의 연대로 추진할 수 있다.

▶ 대책위 구성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다.